

“취업 좁은문 뚫자” 장애인 1000여명 열정

광주·전남 장애인 채용박람회 가보니

“자격증 15개에도 번번히 고배... 이번엔 편견없는 채용되길”

대기업·공공기관 등 참여...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기대감 커

“왜소증 때문인지 2차 면접만 보면 다들 표정이 굳더군요. 이번 채용박람회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마지막으론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한길읍에 달려왔다는 김재현(22)씨는 지난 13일 '2017년 광주·전남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을 나타내며 활짝 웃었다.

왜소증(저신장증)을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목포대학교를 자퇴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김씨는 취업을 위해 밤낮없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 끝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등 자격증만 무려 15개를 취득했고, 서류심사에도 수차례 합격했지만 번번히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김씨는 “서류 전형 후 대부분의 회사에서 전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한다. 면접은 형식상 보는 것이니 나와달라’고 말해놓고는, 막상 면접 당일엔 140cm 인 작은 키를 본 뒤 호의적인 태도가 바뀌더라”면서 “지금까지 50군데 이상의 사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1차 전형 합격 후 면접도 많이 봤지만 면접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주최한 만큼 장애를 앓고 있는 구직자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봐 줄 것 같아 안심된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뇌병변 장애인 김다영(여·24)씨는 “졸업하면 장애인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지 고민이 많았

는데, 이번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면서 “다만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장애인에게 무리가 있는 노동형 일자리 등이 많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 박람회 때는 좀 더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소개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에서 지역 최초로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2017광주·전남지역 장애인채용 박람회’

가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당일 행사로 진행된 이번 채용 박람회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장애인 구직자·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학생은 물론 중장년층 장애인까지 몰려들었다.

장애인 취업준비생의 취업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취업준비생 못지 않았다.

특히 구직자의 높은 관심을 끈 곳은 한국 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의 공공기관과 SK주식회사, 두산 등이 참여한 6개의 대기업 등 12곳으로, 이날 채용박람회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광주·전남지역 사업체 33곳도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채용상담 및 면접을 진행해 많은 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상담

등을 도왔다.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면접 담당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이 취업 등을 문의했으며, 실제 30여명이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불편한 몸에도 정신적인 의욕이 훌륭하고 수준도 높아 곧바로 업무에 배치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기대 이상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은영 광주지사 취업지원 부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광주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25%로, 전국통계보다 0.61% 포인트가 더 높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지난 13일 열린 '2017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장애인들이 채용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광주·전남의 33개의 업체가 참여한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모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중학교 성폭행 용의자 한달간 근무 방치

여수서 학생 2차 피해 노출

여수의 한 중학교가 고내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된 공익요원(교육도우미)을 한 달간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여수 모 중학교가 경찰의 분리조치 권고를 무시하고 학내 성폭행 용의자인 공익요원을 계속 근무하도록 해 피해 학생을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상담소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이 중학교 교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반 학생 A양이 교육도우미인 공익요원 B(21)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를 당했다. 경찰은 확보한 DNA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지난 11일 용의자와 공익요원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B씨를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상담소는 학교 측이 B씨의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격리하지 않고 계속 특수반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하도록 방치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5~6일 만에 B씨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소환 조사 등을 하며 피해자와 분리조치 등을 권고했음에도 학

교 측이 전보나 대기 방령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지난 1일에서야 B씨를 다른 곳으로 방령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내 폭력 발생 시 기관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가해자가 ‘선생님’의 위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낚시배 충돌사고로 선장 숨겨 문화재보호구역 낚시 적발도

본격 낚시철을 맞아 지난 주말 낚시배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4일 오전 6시10분께 여수시 돌산읍 근내항 500m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7.93t·승선원 18명)와 여선 B호(1t·승선원 1명)가 충돌해 B호 선장 C(71)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같은 날 여수 해상에서는 낚시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낚시 혐의로 적발됐다.

D호(9.77t) 선장 E씨(43세) 등 6명은 14일 오후 2시45분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낚시가 금지된 여수시 상백도 서쪽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도 왜곡 수록 5·18단체 면밀 검토 후 추가 대응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범인으로 오조부터 이미 무기고 습격이 진행됐다 하는 기록들이 있다. (403쪽) 등이다.

5·18기념재단은 “이번주 중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왜곡 부분을 추가로 취합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측이 범인이 지정한 33곳을 삭제한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을 지난 13일 출간했다. 수정본 곳곳에도 추가로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출입을 제지당한 학생들이 한순간 경비병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돌을 주을 만한 곳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학생들은 돌을 미리 가방에 담아왔던 것이다’(390쪽), ‘광주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충돌이 유행사태로 번지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시위대가 무장을 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399쪽), ‘무기고 습격이 5월21일 오후 1시 이후에 시작됐다

고 하는 시민군 측의 주장과 달리 그날 오전부터 이미 무기고 습격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1980년 5월18일 전남대 정문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계엄군들이 먼저 폭력 진압을 하자 학생들이 주변 공시장에서 돌을 주워 던졌으며, 집단 발표 이전 시민군 무장의 경우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5·18 관련 보고서를 통해 조작성 기록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기본 소송에서 회고록 출판은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 대표적 왜곡사례 33곳만 추려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외에도 회고록 곳곳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수정본 출간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비롯한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핵심국의 체류’라고 주장했으며, 범인이 지난 8월4일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재단 등의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회고록의 유통 등이 중단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승인

5·18재단 이번주 현장답사

5·18기념재단과 광주 5월 단체들이 옛 광주교도소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가 법무부 허가를 얻었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 일대 부지를 소유한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화 구두 통보로 부지 내 암매장 발굴조사를 승인했다.

5·18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현장 조사 참여자, 조사 범위 등 발굴 계획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현장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답사에는 암매장 추정지 제보자와 발굴조사에 참여할 법의학, 지리학, 고고학 분야 전문가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재단 등은 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옛 광주교도소 인근 암매장 관련 매도(약도)와 5·18 당시 교도소 수감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발굴 조사를 추진했다. 또한 올해 광주시 동구 제2수원지 인근과 광주~화순간 너티재 인근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VR 아동’ 등 음란물 3만여편 불법 유통 수천만원 채취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기로 볼 수 있는 ‘아동’

인 이른바 ‘우동’ 등을 공유했던 남성 5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9세) 등 5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D웹하드에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회원 1만여명을 모집하고 ‘우동’ 등 음란물 3만7000여편을 불법으로 게시·유포해 35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

“이들이 공유했던 아동 중에는 ‘VR 아동’ 일명 ‘우동’도 다수 발견됐는데, 이 영상은 VR기기를 착용하고 감상할 시 360도 회전은 물론이고 보고 싶은 방향이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재단 등은 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옛 광주교도소 인근 암매장 관련 매도(약도)와 5·18 당시 교도소 수감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발굴 조사를 추진했다. 또한 올해 광주시 동구 제2수원지 인근과 광주~화순간 너티재 인근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t contains detailed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본지방법원 제1부민사부서에서 접수된 채권채무조정신청에 따라 본지방법원 제1부민사부서에서 접수된 채권채무조정신청에 따라 본지방법원 제1부민사부서에서 접수된 채권채무조정신청에 따라 본지방법원 제1부민사부서에서 접수된 채권채무조정신청에 따라 본지방법원 제1부민사부서에서 접수된 채권채무조정신청에 따라...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